

# 부산 스포츠 시상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43**  
2023. 11

## 부산체육인

앞으로 뻗어나갈 건강한 나뭇가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줄넘기협회 이미애 회장

## 영광의 인물

십대부터 구십 대까지 평생의 스포츠, 소프트테니스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 장춘영 고문

## 이슈 & 포커스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뜨거운 축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 부산체육의 미래

믿음으로 거두어들이는 금빛 결실  
부산체육고등학교 세팍타크로부

## 스포츠 히어로

거침없는 쾌주, 한신 브레이커의 무한 질주!  
부산광역시중구청 백인철 선수

## 구·군체육회를 가다

연제구민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다  
부산광역시연제구체육회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화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 부산체육人

앞으로 뻗어나갈 건강한 나뭇가지를 위하여

- 부산광역시줄넘기협회 이미애 회장



## 영광의 인물

십 대부터 구십 대까지 평생의 스포츠, 소프트테니스

-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 장춘영 고문



## 이슈 & 포커스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뜨거운 축제

-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 부산체육의 미래

믿음으로 거두어들이는 금빛 결실

- 부산체육고등학교 세팍타크로부



## 스포츠 히어로

거침없는 캐주, 한신 브레이커의 무한 질주!

- 부산광역시중구청 백인철 선수



## 구·군체육회를 가다

연제구민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다

- 부산광역시연제구체육회



# 앞으로 뻗어나갈 건강한 나뭇가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줄넘기협회  
이미애 회장

부산광역시줄넘기협회는 2009년 결성 이후, 14년 만에 부산지역 내 10개 지부를 두고 천여 명이라는 인원이 모일 만큼 줄넘기를 향한 구성원들의 사랑이 뜨겁다. 그 열정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자 단단한 뿌리로서 부산광역시줄넘기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미애 회장은 어떻게 줄넘기와 만나게 되었을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초음 어린이대공원에서 줄넘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무작정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갔던 그곳에서 처음 줄넘기를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네요.”

그가 줄넘기를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줄넘기는 모두에게 단순한 운동이었고, 지금처럼 하나의 ‘업(業)’이 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보통 줄넘기는 아이들의 키 성장을 돕기 위해서, 혹은 취미 생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포츠 종목과 마찬가지로 줄넘기 역시 전국대회도,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죠. 특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번갈아 뛰기’ 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애 회장은 배울 점이 많은 협회가 있다면 전국 어디에 있든 직접 방문해 본다고 한다. 돌아온 뒤에는 협회 임원들과 의논을 거쳐 벤치마킹을 시도한다. 끝없이 배우고 생각하며 실천으로 옮기는 태도. 그것이 이미애 회장의 인생철학임과 동시에 줄넘기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었다.

“그리 긴 시간이 아님에도 협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덕분입니다. 부산광역시 줄넘기협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덕분에 협회가 건강히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뿌리가 있기에 자라나는 나뭇가지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 십 대부터 구십 대까지 평생의 스포츠, 소프트테니스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

장춘영 고문



장춘영 고문은 올해 아흔이 넘은 나이에 건강한 신체와 정신력으로 소프트테니스를 즐기고 있다. 교육자로서 오랜 세월 동안 헌신한 그에게 소프트테니스는 인생의 동반자와 같다고.

“소프트테니스 경기를 통하여 품성(品性)과 인격(人格)을 도야하고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구 즉, 소프트테니스의 매력은 너무나 황홀하고 빛나며 섬세하고 가슴 설레는 환상적인 운동경기입니다.”

소프트테니스 덕분에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참 많다는 장춘영 고문. 1999년도에 북부산정구클럽 회장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서면에 위치한 개성중학교 테니스장에서 흥남태내과 원장을 비롯한 8명이 모여 북부산정구클럽이 탄생하였다. 지금은 가야공원 아름테니스장에서 김종열 회장을 비롯해 평균 연령 85세의 10여 명의 회원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운동을 하고 있다.

“경기가 시작되면 강서브에 이어 베이스라인에 가깝도록 길게 대각선으로 찰러주고 다음은 센터 쪽으로 길게 찰러주고, 다음으로 평행으로 길게 찰러줍니다. 다 받아 올리면 그다음은 네트에 아주 가깝게, 짧게 살짝 넘기는데, 80~90세 노인이 이걸 다 받아넘깁니다.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죠. 감탄과 탄식이 절로 용솨음합니다.”

장춘영 고문이 소프트테니스를 통해 얻은 가장 큰 혜택은 ‘건강’이다. 고향인 통영에서 소프트테니스를 시작하고부터 80여 년의 세월을 마음먹은 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삶의 원동력 되었다. 삶의 가치는 건강을 유지하며 즐겁게 사는 것에서 온다는 것이 그만의 곧은 철학이기도 하다.

“근력만 뒷받침된다면 한평생 동반자인 스포츠를 가져보는 걸 추천합니다.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운동으로 풀고 더욱 탄탄한 정신력으로 무장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율택해지겠습니까. 소프트테니스를 통해 많은 분이 건강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뜨거운 축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지난 10월 13일(금)부터 19일(목)까지 7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진행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뜨겁게 막을 내렸다. 부산은 전국체육대회 종합순위 7위로 6대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총득점은 3만 8,657점 ▲메달 187개(금 46, 은 64, 동 77)를 기록했다. 더불어 ▲세팍타크로 ▲사격 ▲승마 ▲에어로빅·힙합 ▲요트 등 5개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세팍타크로팀은 전국체육대회 6년 연속 최정상에 올랐으며, 부산체고 세팍타크로부는 4년 만에 남·여 동반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수영 백인철(부산광역시중구청) 선수는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접영 50m 금메달에 이어 금빛 질주를 이어나가며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다. 에어로빅·힙합 류주선 선수(부산광역시체육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3관왕을 차지하는 등 부산 선수단은 눈부신 쾌거를 거두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 믿음으로 거두어들이는 금빛 결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 세팍타크로는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전국체육대회에서 6연패를 달성, 명실상부 최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거둔 데에는 4년 만에 남녀팀 동반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룬 부산체고 세팍타크로부의 공이 컸다.

이번 대회에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로 남자팀 4강전 경기다. 풍무고를 상대로 3세트에서 14 대 7로 뒤지는 상황에 놓였던 것. 패색이 짙어지던 찰나, 주전 공격수를 빼고 비주전 공격수를 교체 투입. 그때부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교체 투입된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서 듀스를 만들고 역전승을 하는 순간은 모두에게 짜릿함을 선사했다.

지도자와 선수 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전국 최강' 수식어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구슬땀을 흘리는 부산체고 세팍타크로부. 내년 전국체육대회 동반 우승을 목표로 활약을 펼칠 그들을 응원한다.



# 거침없는 캐주, 한신 브레이커의 무한 질주!

부산광역시중구청

백인철 선수

올 한 해, 백인철 선수의 수영 인생은 잊지 못할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 처음으로 국가대표 타이틀을 달고 출전한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접영 50m 대한민국 최초 금메달을 안겨주더니, 곧바로 전국체육대회에선 본인이 세운 한국 신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기염을 쏘아냈다. 올해만 한국 신기록을 네 번 갈아치운 백인철 선수는 23.15초의 기록을 세우며 접영 50m 최강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신(한국 신기록) 브레이커’로 불렸으면 한다면, 큰 성과에 도취하지 않고 다음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묵묵히 훈련 중인 백인철 선수. 가까운 목표는 아시아 레코드를 갈아치우는 것.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야 하는 시기인 만큼 헤이해지지 않고 빠르게 달려 나가보겠다는 당찬 포부를 전했다. 대한민국 수영의 황금기에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백인철 선수의 거침없는 무한 질주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 연제구민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다

부산광역시연제구체육회(이하 연제구체육회)는 ‘건강한 연제가 행복한 연제’라는 모토를 가지고, 생활체육을 통한 체육 운동의 범구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제구체육회는 21만 구민이 함께하는 ‘구민체육대회’를 비롯하여, 10개 종목의 ‘구청장기대회’ 및 종목마다 ‘협회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부터 개최한 ‘연제구체육회장배 인라인스케이트대회’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과 동시에 건강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으로 진행한 ‘플로깅페스티벌’은 7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1월에는 거칠산국의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음미하며 거닐 수 있는 배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연제구체육회는 앞으로 ‘체육의 미래가 연제의 미래!’임을 잊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함께할  
**부산체육사랑카드 출시!**



**전국 지자체와 시도 체육회 중 최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건강이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운동을 즐기는 시민이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중에는 동백전처럼 소비자가 상품 구입 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카드는 있었어도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부산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은행이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 ‘부산체육사랑카드’를 출시했다. 부산시체육회 회원 및 생활체육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이번 카드에 대해 궁금한 점을 Q&A를 통해 해소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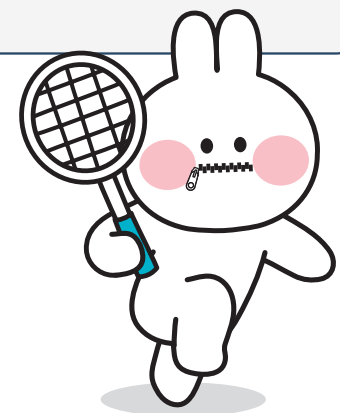
**Q & A**

**부산체육사랑카드, 무엇이 특별한가?**

**Q**

평소 생활체육센터 배드민턴장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 카드를 통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산체육사랑카드는 부산광역시 체육회가 지정한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50개)을 이용할 때 **월 최대 1만5천 원 한도로 10% 이용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부산시내 구·군 생활체육센터는 물론, 스포원파크, 명지레포츠센터, 동래인공암벽장, 장안천야구장,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남구실내빙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에서 할인이 적용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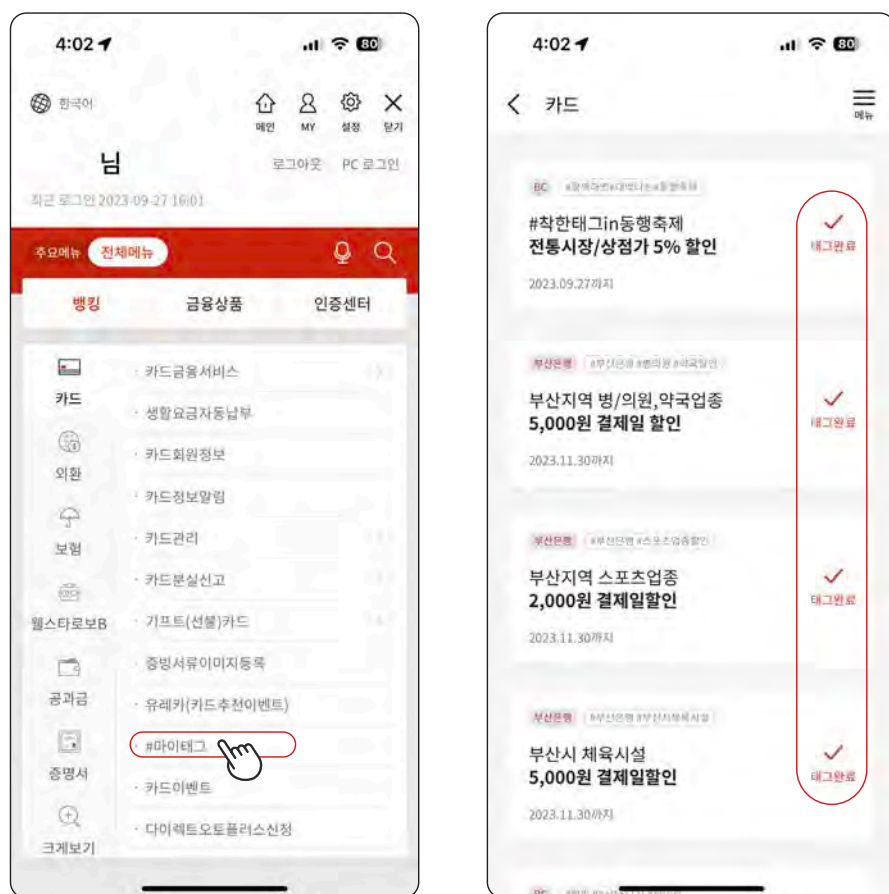
**Q** 저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 소속인데 장안천야구장, 리틀야구장 같은 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스포츠 시설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혜택이 한정적이지 않은가요?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이 선호하는 5대 업종(스포츠, 의료, 건강식품, 학원, 생활)**에서 할인이 된답니다. ▲골프, 레저, 스포츠 업종과 ▲병원, 약국 업종에서는 월 2회 최대 1만 원 한도에서 10%, ▲학원이나 ▲홍삼, 인삼 등 건강식품 업종, ▲간편 결제, CU, GS25, 스타벅스에서도 월 2회 최대 5천 원 한도에서 5% 할인 혜택이 주어 진답니다.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 및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스타벅스까지 된다니 혜택 범위가 꽤 넓군요! 연회비가 1만 원이라고 했는데 모든 업종별로 월 할인한도 안에서 혜택을 다 받으면 한 달에 최대 4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니 완전 꿀이득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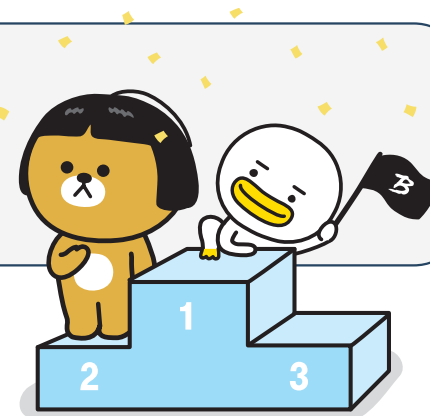


그럼요! 완전 꿀이득이지요! 단, 통합 할인한도에 따라 40만 원 이상 시 1만 원, 80만 원 이상 시 2만 원, 120만 원 이상 시 4만 원의 혜택을 받는답니다. 또한 부산체육사랑카드 출시를 기념하여 올해 11월 30일까지 부산지역 스포츠 연계 업종 결제 시 최대 1만 2천 원 할인 이벤트도 열리고 있습니다. BNK부산은행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이벤트 이용방법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들어가서 전체 메뉴>카드>#마이태그 페이지에서 부산시 체육시설 및 스포츠 업종, 병원약국 업종을 태그하고 난 후 결제하면 할인이 제공된답니다.



**Q** 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체육을 사랑하는 생활체육인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카드이겠군요. 이 카드를 열심히 사용해서 열심히 훈련하면 내년에 열리는 생활체육인 동호회 대회에서 상위권 수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내년도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